



작은 작당부터
유기적 연결의 커뮤니티까지,
원도심을 움직이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힘

지면안내

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행공'

- 재래시장의 의·식·주 투어
- 제주 생활 문화의 원천 '우영팻'

4~7 원도심 탐구

- 원도심 속 개인 작업공간을 엿보다.
- 시각디자이너의 '공간실험 88-1'
- 반짝거리는 것을 만드는 작업실, '반명'

8~9 도시재생의 이해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1_전략방향과 제주는?

10~11 원도심 관찰일기

- 고요한 원도심 속 새로운 활력 동문시장 '야시장'

12~16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 2018 함께해서 더 좋은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 2018 제주시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 제2기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 20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
- 2018 도시재생 실무단 현장포럼
-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재발견

재래시장의 의·식·주 투어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하는 ‘오메기 컬리너리 투어’가 제주 동문 시장 및 W스테이지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총 30명 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50년 넘게 제주에 사는 토박이부터 제주에 입도한지 얼마 안 된 이주민,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오메기 컬리너리 투어’는 이희준 전통 시장 도슨트와 함께 1시간 동안 동문 시장을 탐방하며 그곳의 ‘의, 식, 주’ 문화를 듣는 시간과 W스테이지 제주에서 스튜디오 담음의 한미정 강사와 오메기 떡의 유래와 역사를 들은 뒤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동문 시장 투어는 ‘의, 식, 주’라는 3가지의 키워드 아래 ‘의: 동문 시장의 원단 포목상점과 영화관’, ‘식: 오메기떡의 오리지널과 제주 토박이 참기름 구매편’, ‘주: 제주 칠성통 원도심을 기반으로 한 제주 동문 시장 이용객의 주거’를 주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젊은이의 시선에서, 제주의 시장을 재발견하다”

지난 2월 26일 월요일 오후,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15년 넘게 전통시장의 매력에 빠져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시장의 이야기와 시장을 이끄는 사람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전통시장 도슨트’ 이희준 씨인데요. 제주 동문재래시장 하면 많은 관광객에게 여행의 마지막 순서로, 여행 기념선물을 사고 공항 가기 전 둘러보는 코스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제주 사람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큰 전통시장에는 반드시 목욕탕, 미용실, 약국이 있었다고 하는 이희준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온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뒤, 목욕탕을 다녀오고, 마지막으로 장을 보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

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탐방 후 원래 우리 제주의 어른들이 먹었던 오메기떡을 만드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제주 엄마들의 이야기가 옷이 담긴 전통 오메기떡은 기존 시장에서 나와 있는 오메기떡처럼 찹쌀이나 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차조 100%’로 만든 다소 거친 식감의 떡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제주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온 삶의 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특히나 단맛에 길든 어린 친구들이 “맛있다”를 연발하며 오메기떡을 먹는 모습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희준 씨와 함께 탐방했던 제주전통시장에서, 활기에 가득 찬 공간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험하게 비어있는 공간,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동문재래시장의 역사가 담겨있는 곳까지 우리가 몰랐던 제주 동문재래시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옛 문화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 원형을 살리면서 지금 우리 세대는 제주의 재래시장을 또 어떻게 가치 있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담음 한미정



제주의 천연염색과 송키도시락의 만남

제주 생활 문화의 원천 '우영팻'

'아름다운 천연 염색으로 감싸는 봄 도시락'이 3월 30일(금) 원도심 고씨주택에서 오후 1시~6시까지 진행되었다. 행사는 크게 양혜미 오끼 416 대표의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입는 것이다: 우영팻이야기와 제주 로컬푸드를 이용한 천연염색 실습'과 스튜디오 담음 김진경 강사의 '제주 봄철 도시락 포장: 보자기를 이용한 다양한 보자기 포장 시연, 제주 봄철 송키쌈밥도시락 포장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품고 있는 우영팻에서 나온 다양한 먹거리와 그 먹거리가 이어주는 제주인의 살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당의 자투리땅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조성된 우영팻은 '작은 텃밭'이라는 뜻으로 제주인들에게 일상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었다.

“우리 집 밥상에서 가장 가깝고 신선한 채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유난히도 꽃샘추위가 많았던 2018년 제주의 봄의 중턱에서 제주 전통 먹거리로 제주식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고씨주택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의 우영팻은 다른 지역의 텃밭처럼 작물을 가져다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옷감을 얻기 위해 감나무, 적꼬지를 심었고, 차롱이나 동고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덩유지,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제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외에도 된장, 간장독과 젓갈 단지, 돛통시, 처마 밑에 주로 올라오는 양하 등이 있어 제주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제주의 문화 공간이지요.

특히 제주의 식재료들은 우리가 입는 옷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주의 풋감이 대표적이죠. 사실 제주의 옷감이라 하

면 대부분 갈옷을 생각하고 있어 풋감으로 염색을 해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계절상 풋감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봄의 기운에 맞게 제주의 지천에서 봄의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올라온 썩을 이용해 천연염색을 해 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썩 향이 고씨주택에 은은하게 퍼지고, 그 썩 향을 자신의 천에 물들이는 참여자들의 얼굴에도 봄꽃처럼 생기가 돌면서 제주의 전통 먹거리 먹는 것뿐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삶의 살림살이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행복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염색 천을 돌담에 가지런히 올려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영팻에서 따온 송키

(채소라는 뜻의 제주어)를 가지고 '송키쌈밥 도시락 만들기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해 먹었던 그 조리법 그대로 봄 내음을 가득 담은 송키도시락이 완성되고, 각자 염색한 보자기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모습들은 어렵게 느껴졌던 포장을 좀 더 쉽고 즐거운 우리의 살림살이로 들여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영팻을 가진 집이 많이 없어진 것이 제주의 현실이지만, 제주의 우영팻이 가진 지혜와 우영팻을 통해 살아갔던 제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던 봄날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담음 한미정



열려있는 ‘안식의 공간’을 꿈꾸는 실험

시각디자이너의 작업 공간, ‘공간실험 88-1’

얼마 전 지인이 제주시 원도심에
 작업 공간을 오픈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없는 골목 귀퉁이의
 세모꼴 건물.
 사람들이 오가는 상업적인
 공간 사이 반쯤 감춰진
 제주시 중앙로 88-1번지에 위치한
 시각 디자이너의 작업실.
 그녀는 원도심의 죽어있는 공간을
 ‘최저의 비용으로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모토로
 실험을 했다고 한다.
 리모델링 된 작업실에서는
 ‘공간의 살아있음’에 대한
 그녀의 생각처럼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하 인터뷰)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저는 ‘어떤 생각이든 연구소’라는 1인 기
 업체를 운영하는 시각 디자이너예요. 개
 인 작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작년 3월
 본격적인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
 터 느꼈어요. 집에는 남편과 아이가 있어
 서 ‘개인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
 웠거든요. 카페나 무료 협업 공간에 나와
 서 작업하는 것도 자유롭기는 했지만, 시
 간의 고민 없이 들릴 수 있는 ‘온전한 나
 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 공간
 을 많이 알아보고 다녔는데, 제가 프리랜

서로 활동한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비용
 적인 부담이 있었고, 원하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 이곳저곳 알
 아보는 것에서만 그치게 되었어요. 나중
 에 어느 정도 여력이 갖춰지면 다시 찾아
 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이 공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계속 공간이 비어있었는데 주변 수소문을
 통해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서 임대 문의
 를 드렸죠. 전에 ‘소주방’을 하던 공간이
 었는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 내
 부는 곰팡이부터 쾌쾌한 냄새까지 보수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요소가 저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웃음). 죽어있던 공간이 제 손을 거쳐서 좋게 변화할 때 희열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공간 실험 88 -1’

공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작업실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고민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이곳의 주소가 ‘중양로 88-1’이라는 것이 맘에 들어서 ‘공간 실험 88-1’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저 비용으로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모토로 실험을 해봤어요. 최저 비용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구하다 보니 계약 기간이나 활용 면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이곳에 원래 있는 자원을 저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전체 컬러 톤도 있는 자원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색을 선택했었어요.

사실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한 비용을 고려해보면 저렴한 가격의 깔끔한 사무실을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작업공간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잠깐 있더라도 그 공간에 저의 손길이 묻어있어야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덜 다듬어진 거리, 공간, 도시의 매력

제가 원도심이라는 곳에 작업 공간을 구하게 된 이유도 비슷해요. 완벽하고, 각 잡힌 건축물을 보면 제가 거기에 접하나



를 찌기도 어려운 위압감이 들잖아요. 굉장히 냉철하고, 완벽한 사람을 마주하면 가까이 다가갈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요. 원도심을 사람과 비교하면 동네의 삼촌이나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도심처럼 덜 다듬어진 공간은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나의 스타일로 완성해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게 공간뿐 아니라 거리, 도시라도요.

저는 계속 제주도에서 살아왔던지라 원도심에 관한 추억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장 트렌디한 것들이 몰려있는 곳은 이 곳 원도심이였거든요. 탐동랜드, 노래방, 이미지 사진, 쇼핑 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양로, 칠성통 쪽에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바쁜 고등학교 시절을 겪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멀어졌어요. 한동안 원도심이 멈추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다시 와보니 이곳의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열려있는 ‘안식의 공간’을 꿈꾼다.

제 작업실도 원도심의 매력처럼 편안하고,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부터라도 가볍게 일 처리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왔을 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되었으면 해서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작업 공간이 없을 때 그런 열린 공간이 필요했기도 했고요. 제 작업실에서 어떤 연결, 혹은 꼭 연결이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화, 간단한 작업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어떤 공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쁘고 멋진 공간도 가고 싶지 않고, 들리는 이가 없다면 그 공간은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 공간이 생긴다면, 시스템의 측면에서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계속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성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살롱

반짝거리는 것을 만드는 작업실, '반띵'



도자와 금속 주얼리의 연결

'반띵'이라는 이름은 '반짝이는 것을 만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저는 원래 '도자'를 전공 했어요. 주변에 '도자 주얼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자 주얼리'와 '도자' 작업을 함께 해왔었어요. 원래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었는데, 생활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 고향에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네 창고가 비어 있다는 말에 2년 전쯤 제주에 내려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은 창고에서 작업하려다 보니 간단한 작업 위주로 하나씩 하게 되었고, 그때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었던게 '금속 주얼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도자는 아무래도 가마도 필요하고,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도자의 오브제 위주의 작업과 '금속 주얼리'가 합쳐지게 되면서 제 작업은 주얼리의 느낌보다는 조각의 느낌과 가까워요.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나뭇가지나 물결과 같은 정형화 되지 않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은 주로 금속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고 싶거든요.

다양한 것들의 조화로움, 한일 슈퍼

현재 작업실은 제가 근처 '쌀 다방'이라는 카페에 자주 가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쌀 다방의 느낌이 좋아서 자주 왔었는데, 주인분과 동갑이라서 쉽게 친해졌어요.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미술을 전공해서

우연히 SNS를 통해 '반띵'을 알게 되었다.

제주시 원도심의 '아주 작은 작업실'이라고 소개된 반띵의 SNS 속 사진은 녹색 잎의 식물과 은을 가공한 액세서리의 조합이 인상적이었다.

상품을 판매하는 전시 공간은 계속 열려있다는 말에

사진 촬영차 미리 '반띵'의 공간을 찾아가 보았다.

제주 원도심의 '목관아' 맞은편 한가롭고,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미래책방'의 바로 옆에 친구처럼 붙어있는 공간이 보였다.

바로 '한일 슈퍼'라는 간판을 내건 반띵의 공간이었다.

외부의 지붕과 간판은 낡고, 오래되었기에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거리낌 없이 발걸음을 내부로 옮길 수 있었다.

근처 '쌀 다방'이라는 카페에서 잠시 놀러 온 강아지 덕분에

정겨운 첫 느낌을 받은 전시 공간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액세서리와

감각적인 소품들이 가득했다.

공간 내 하얀색 커튼으로 작업 공간과 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를

가리고 있었는데, 가벽의 뚫려있는 창을 통해 언뜻 보이던

작업공간의 모습이 며칠 뒤에 있을 만남을 더 기대하게 했다.

(이하 인터뷰)

통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동네에는 아직 오래된 도장집, 세탁소 등이 남아있어요. 그런 공간이 현재와 조화롭게 존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실 공간을 구하고, 리모델링할 때도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어요. 쌀 다방이라는 카페도 쌀집의 간판을 그대로 살렸잖아요. 저도 한일 슈퍼라는 이름이 좋아서 간판을 그대로 살렸어요. 사실 이 슈퍼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데 그때 보았던 이곳을 기억해요. 슈퍼라는 곳은 다양한 것들을 파는 공간이잖아요. 군것질거리도 팔고, 술도 팔고, 식재료도 팔고,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반딧불의 공간도 '이것을 하는 곳이다'라고 규정지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원도심의 복합 문화 살롱

작업 공간은 현재 4명 정도가 공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시 공간은 2명이 쓰고 있어요.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이곳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각자의 느낌들이 공간에 묻어났어요.



그게 조화롭게 모이다 보니 공간에 독특한 매력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공유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아요.

이곳은 작업실이지만 함께 모여서 노는 '놀이 공간'이기도 해요. 다들 미술을 전공해서 관심사가 비슷해요. 다방처럼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담소도 나누고, 철학, 사회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뉘요.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나누기도 해요. 서로 음악도 가르쳐주고, 외국에 오래 있다가 온 친구는 외국어 수

업도 진행해요. 각자 작업을 공유하다가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곳이 점점 '복합 문화 살롱' 같은 재밌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람들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싶어요. 저희끼리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장해서 자신 있게 작업물을 내놓고, 전시도 하고 싶어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소품 가게보다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고, 작업한다는 것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1 전략방향과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재근 사무국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대규모 계획 대신 사업 범위는 크게 축소하되 사업의 종류도 늘려 매년 100여곳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전의 도시재생 사업에 비해 방향을 바꿔 사업을 확대중이다. 사업의 이름에서도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으니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다.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중앙 정부는 금융과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에 입각한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재생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다른 한가지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심공간을 단순히 살려낸다는 내용보다 도심공간의 활성화와 여기에 맞는 인적 네트워크가 함께 운영되는 전략적 정비를 하겠다는 방향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중 실질적인 변화는 사업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 경제기반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3가지의 사업유형에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중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이 추가됐다.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이 추가되어 5가지 유형으로 늘어났다.

각 유형별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동네 살리기_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 지원형_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 일반근린형_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과 무인택배 등 주민 체감형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사업

| 중심 시가지형_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_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 유형별 특징 -

구 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필요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국비지원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집행기간	3년	4년		5년	6년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내외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공동이용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제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지난해 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를 공모한 끝에 제주도는 2개의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제주시 일도2동 지역이 ‘곰 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선정됐다. 서귀포 월평마을은 ‘훈디 손심영!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됐다. 제주도에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을 고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망

이같은 뉴딜 사업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선정된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정될 지역은 100곳 내외가 될 예정이다. 이중 70곳 내외는 광역지자체에서 평

가.선정하도록 위임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의 선정은 평가 주체에 따라 광역 평가, 중앙 평가로 구분된다.

광역평가는 각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된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에 언급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선정하게 된다.

일정이 명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 말에 공고된 선정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각 단위별로 신청접수하고 이후 1차서면 평가,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평가 종합 및 검증을 거쳐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8월말이면 2018년도 도

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새롭게 100여곳 선정된다.

제주의 경우도 최소한 작년 수준에서 사업이 선정된다고 할 경우 2곳의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도시재생 사업지는 제주시 원도심의 모관지구(중심시가지형)과 제주시의 신산머루지구(우리동네 살리기), 서귀포시의 월평마을(주거지지원형)에 이어 최소 5곳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매년 늘어날 전망이어서 문재인정부의 임기내에는 최소 10여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전역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고요한 원도심 속 새로운 활력, 동문시장 '야시장'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 20:03

#4 중앙로사거리,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커플.



2018. 4. 19
늦은 저녁

🕒 20:00

#1 늦은 시각, 한적한 원도심을 환하게 비춰주는 카페 불빛.



🕒 20:01

#2 주변 골목길, 어둡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음.



🕒 20:55

#14 마지막 떨이로, 2접시에 1만원으로 판매하는 횃집 아저씨.



🕒 20:50

#13 야시장을 지나쳐서 나오는 동문시장 골목 그곳에도 사람들이 붐빔. 상인들도 기존시간보다 좀 더 늦은시간까지 영업.



🕒 20:45

#12 생소한 태국꼬치구이를 판매함. 저렴한 가격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푸짐해보는 고기가 있었음.



⌚ 20:08

#5 저녁시간 동문 야시장으로 가는 동문시장 입구쪽 골목. 이 부근 대부분의 가게문이 닫혀 있었음.



⌚ 20:10

#6 마지막 손님을 받는 야채 파는 할머니. 오늘 하루 고생하셨으니, 잔돈 대신에 다른 야채를 더 달라는 손님.



⌚ 20:15

#7 붐비는 야시장, 사람들의 시끌벅적 말소리.



⌚ 20:20

#8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새우 요리들. 사람들의 줄이 길어서 눈으로만 살펴봄.

⌚ 20:38

#11 종이박스에 쓰여진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통. 먹고나서 두리번거리다가 자연스럽게 찾음.



⌚ 20:28

#10 "지나치면 후회한다" 위트있는 문구로 눈길을 끈다. 유심히 어떤 요리를 하는지 바라보게 됨.



⌚ 20:23

#9 해물과 전복 요리에 와인이 곁들여진 디스플레이! 와인을 한 모음하고 싶어지는 비주얼.



마을·주민 지원사업도 함께하면 더 쉽게

2018 함께해서 더 좋은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도내 공동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협업

제주지역에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마을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2018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가 지난 2월 21일 제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행사는 제주도내 공동체지원을 수행하는 4개 중간지원조직(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으로 구성된 가칭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가 주최했다. 특히, 마을만들기에서부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센터별 현장상담이 진행되면서 200여명의 주민과 마을별 관계자들이 열띤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다.

우리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 사업

설명회에 앞서 마련된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기조강연은 마을발전 방안마련을 고민해왔던 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센터장은 '우리가 행복한 마을공동체사업의 이해'를 주제

로 한 기조강연에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지역균형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에 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은 '지역경제구조를 건강하게 바꿀 기회'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제주도에 아무리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와도 들어온 돈이 다 빠져나가면 소용없다. 제주에 돈이 돌아야한다"며 "마을도, 읍면지역도, 제주도 자체에서도 적정규모의 돈이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돈이 돌아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야말로 제주에 돈을 돌릴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지역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의미를 재조명했다.

함께해서 더 좋은 합동설명회

강연에 이어 각 센터별 특징과 올해 추진하는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특성을 살리는 '모다들영사업' △도내 마을 및 공동

체의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수놓음 사업' △지역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흔디모영사업'을 설명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도시재생 주민 공모·제안 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뉴딜 공모 지원사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중 △마을기업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권역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소개했다.

설명회 직후 센터별로 마련된 현장상담에 많은 주민들이 집중 상담을 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한 지역주민은 "올해 처음 4개 중간지원조직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공동체 관계자들이 관심 사업을 일일이 찾아서 들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2018 제주시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협력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과 학교가 교육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여 돌봄과 나눔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앞서 지난 3월 14일에 진행된 사전간담회에는 워크숍 참여자 뿐만 아니라 도 도시재생과, 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

지원센터 등 행정과 전문가, 중간지원조직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제주시 원도심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 전문가, 지역 예술가,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 등 20명이 참여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역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북초등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초등교육의 현안과 교육수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전문가와 지역예술가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지난 4월 25일에는 워크숍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와 워크숍에서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참여형 마을교육공동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지역전문가와 학부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2018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국토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7월까지 컨설팅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아이의 부모, 가정,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지고, 곧 그 선순환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원도심을 구성한다. 앞으로의 제주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의 향방이 더 기대가 된다.



‘도시재생 뉴딜’ 주민 교육으로부터!

제2기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난 3월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도시재생 관련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2018 상반기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6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매년 1회씩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주시 2회, 서귀포시 2회, 총 4회로 대폭 확대되어 진행된다. 먼저 상반기에는 ‘주거재생’ 중심의 ‘제2기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와 ‘시가지재생’ 중심의 ‘제2기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상반기 수강생은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총 114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강연에는 정책입안자, 현장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으며, 도시재생 정책은 물론 도내외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주시

먼저 상반기에는 주거재생을 중심으로 한 ‘제2기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본 교육이 도시재생 주민교육의 첫 단계임을 감안하여 각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강의는 총 4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서귀포시

시가지재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제2기 서귀포시 아카데미’는 총 4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승택 센터장은 “이번 강좌는 도시재생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중앙의 지원과 정책,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주에서의 활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원도심/대정읍 ‘도시재생대학’ 진행

“주민의 의견이 계획이 됩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4월 말, 도시재생대학이 개강한다. ‘도시재생대학’이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사업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식 교육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대학’은 <공통이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으로 구분되며, 공통이론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제안을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교육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서귀포시 원도심과 대정읍 2군데가 신규 교육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교육 과정은 4주간의 <공통이론과정>과 8주간의 <문제해결과정>으로 구분되며 <문제해결과정>의 시작에 앞서 팀구성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대학은 총 네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이해>, <2단계 : 지역의 주요 현안 논의>, <3단계 :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4단계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제안> 이다. 이번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가 양성 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주민 의견이 계획이 됩니다.”

도시재생대학이란?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문제를 주민주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공통이론과정	2. 문제해결과정	3. 공통이론과정	4. 문제해결과정
1. 도시재생의 이해 (1회, 2시간)			
2. 도시재생의 이해 (1회, 2시간)			
3. 도시재생의 이해 (1회, 2시간)			
4. 도시재생의 이해 (1회, 2시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다’

2018 제주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승택)는 3월 23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활성화를 이끌 주민협의체 모집에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토지·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대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자 10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7년부터 활동했던 4개팀 이외에 2개

의 팀이 신규 신청하여 총 6팀(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멘도롱또뚝, 무근성 마을, 제주칠성회, 한짓골 생활협동조합, 원도심입주작가협의회)이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협의체는 1년 단위로 선정되며 2020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현안을 논의한 후 센터와 행정 등과 협의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수행 ▲지역자원 발굴 및 아이

디어 제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주민공모 및 제안사업 수행 등이 있다.

주민협의체 등록신청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양한 관점의 지속가능한 협업 및 커뮤니티 도모

제주에 적합한 사업과 거버넌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무단 포럼

2018 도시재생 실무단 현장 포럼이 지난 3월 22, 23일 양일간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별 사례들을 공유, 도시재생 전문가 및 실무단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가 주목적이다. 또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에 진행된 포럼에는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완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단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도시재생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 40여명이 참여했다. 도시재생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모델 마련의 필요성 및 사례들을 공유했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기금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실무단과 함께 제주시 원도심 주요 장소와 도시재생사업지 현장답사하

는 기회를 가졌다. 원도심의 현장답사를 통해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간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에서의 정보와 타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제주에 적합한 사업과 거버넌스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제주의 밝은 미래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지역혁신 파트너를 찾습니다”

Start-Up Challenge

공모

■ 공모내용

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원도심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공공적 마인드를 지닌 지역혁신 비즈니스 발굴 및 공간지원

■ 공모분야 및 규모

공모분야		지원규모	비고
도시재생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 원도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 총 3개 팀 이상 선정 · 공간 당 최대 1억원 이내의 기본공사 등 시설비 지원 ※ 행정에서 직접 공사 시행	컨소시엄 구성 가능 (3개사 이내)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얻어 지역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 공간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하며,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 선정자에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구분	지 원 기 준			
	지원규모 (공간별 지원금액)	사업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85~165㎡
	지원한도	6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지원범위	· 지원범위 : 철거,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등 지원 /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초 공사 지원 ※ 해당금액 내에서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직접 공사(설계 포함) 진행 ※ 임차료 및 기자재 구입,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자부담으로 가능) · ‘공간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 조성			

■ 공모대상 지역 및 공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상생협약(제주특별자치도↔건물주)을 체결한 유휴공간

■ 공모일정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8.04.27.(금) ~ 2018.07.16.(월) 16:00
- 사업설명회 및 현장답사 : 2018.05.28.(월) ~ 2018.05.29.(화)
- 1차 서면평가 : 2018.07.19.(목) / 2차 발표평가 및 선정 : 2018.07.24.(화)

■ 접수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공모서식 다운로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향) www.jejuregen.org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www.jccei.kr
- 접 수 처 : (주소)제주시 중앙로14길 15-6, (이메일)center@jejuregen.org
※ 접수 시 접수증을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접수가 완료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메일로 접수번호를 발송합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팀 064)727-0612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